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담 당** : 장세길 연구위원 사회문화연구부
(063-280-7173)

보도시점: 2021년 5월 00일(0)부터

민주화인권 운동, 장소의 기억화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사업의 과제 제안
조례 개정, 계획 수립, 역사 기록, 장소 유적화, 기념 공간, 예술콘텐츠 개발 등

- 전라북도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인권 운동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 최초의 4·4시위(전북대, 1960), 유신 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시위(전주고, 1972), 유신 치하 최초의 성직자(은명기 목사) 구속피해(1972), 1980년 5월 계엄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이세종 열사) 피해가 전라북도에서 있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선도하였던 전라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계승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 장세길 박사(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정신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장소와 인물

을 기억하는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제안하였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담당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 또 장 박사는 2008~2012년까지 단편적으로 이뤄진 전라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 기록화 사업을 이어받아 주요 사건과 장소, 인물과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2단계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장소의 기억화는 장 박사가 특히 강조하는 사업이다.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경상남도 기념물(제277호)로 지정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장소 등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기록화 사업을 통해 장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고, 민주화·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장소를 기념물로 지정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게 장 박사의 설명이다.
- 장 박사는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면서 건립 중인 전북대표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전라북도역사박물관을 추진하여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육·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기념공원·광장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상징적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 끝으로 장 박사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예

술콘텐츠의 개발과 더불어, 4·19혁명, 동학농민혁명(5·11국가기
념일), 5월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도록 민주화·인권 운
동 계승 기간을 한 달 동안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